

대통령 없는 5·18 기념식…대선 후보 목소리 주목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첫 궐위
이재명 참석, 김문수는 미정
‘헌법 수록’ 로드맵 등 촉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치러지게 됐다.

국무총리 역시 공식이어서 올해 기념식에서는 정부 기념사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메시지가 더 주목받게 됐다.

11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45주년 5·18 기념식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빈으로 참석한다.

5·18 기념식은 1997년부터 정부에서 주관했고, 대통령 참석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 20주년 기념식이 처음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5년 동안 매년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만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세 차례 기념식장을 찾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22년 기념식에서 유족들에게 “매년 오겠다”고 약속한 뒤 3년 연속 참석했다.

대통령 파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에 따라 주빈이 된 이주호 권한대행 다음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고 의전 서열자다.

우 의장은 기념식 전날 열리는 5·18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선관위 후보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대신해 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 김윤덕 사무총장, 이날 후보 등록을 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전날 후보 등록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왼쪽부터).



연합뉴스

전야제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행정부, 입법부 대표와 함께 삼부 요인 중 1명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초청 대상이다. 대법원장은 통상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으며, 조 대법원장도 지난해 불참했다.

올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후 민주당 측의 거취 압박을 받고 있어 참석은 더 불투명하다.

대통령 궐위와 대선 등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시선은 대선 후보들의 입으로 옮겨가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 선대위 관계자들과 다수 의원이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 후보가 오는 17~18일 광주 집중 유세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의지를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구여권 대선 후보의 기념식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확정됐지만, 기념식 참석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거 참석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올해도 상당수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초청을 받아 5·18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민주노동당, 새미래민주당 등 각 정당 대표와 대선 후보들도 기념식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치러지는 올해 기념식은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짧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5·18을 계기로 광주 민심에 호소하는 집중 유세가 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현 기자

이재명 52.1% ‘1위 우뚝’ …김문수 31.1%·이준석 6.3%

리얼미터, 3자 가상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경쟁하는 차기 대선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지지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한 결과, 3자 구도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52.1%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1.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6.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이뤄진 3자 구도 가상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6%, 김 후보가 27.8%, 이준석 후보 7.5%였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답한 비율이 55.8%였고,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39.2%였다.

연합뉴스

민주 ‘김문수 망언집’ …“여성비하·약자조롱”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향해 “진짜 망언의 달인”이라며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모은 ‘김문수 망언집’을 공개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인 강득구·정준호 의원 등은 이날 여의

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여성비하, 약자조롱, 역사왜곡, 노골적 차별발언, 막말로 점철된 갑질 행태까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망언집”을 소개했다.

이들은 “김 후보는 공개 강연에서 결코

를 소년시대를 가리켜 ‘쭉쭉뻘뻘’이라는 성적 비유를 사용하고, ‘춘향전이 똥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X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여성비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대권후보는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마저 의심케 하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광주·전남 정치권, 오늘부터 일제히 대선체제

민주, 민주광장·순천 출정 국힘·민주노동당도 채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되면서 광주·전남 정치권도 일제히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도당은 12일 각각 광주와 순천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6월 3일 투표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2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선대위 구성원, 당 소속 지방의원, 핵심 당원 및 지지자 등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선거운동 시작을 알린다.

앞서 광주시당은 지난 8일 ‘진짜 대한민국 광주선대위’를 출범시켰다. 광

주시당은 선거운동 기간 대규모 집중 유세를 지양하고, 시민 한명 한명 만나 는식의 밀착형 선거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당 선대위와 6개 지역위원회 선대위가 유기적으로 활동하며, 등록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 3,000여 명이 선거운동에 나선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오전 10시 순천 아랫장에서 선거운동 출정식과 함께 첫 거리유세를 시작한다.

전남도당 선대위는 지난 3일 ‘용광로·포용·경쟁’을 기조로 출범했다. 선대 위에는 지방의원, 핵심 당원, 교육계, 종교계, 농어민, 시민사회 등 850여명이 참여했다.

전남도당은 전남 투표를 85%, 득표율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김

문수 후보가 공식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함에 따라 12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10일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대선 필승을 다짐했다.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 전반을 주도한다. 광주시당은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주요 거점에서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다.

전남도당은 12일 별도의 출정식 없이 100여명이 전남지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정의당에서 당명을 변경한 민주노동당은 12일 오후 1시30분 5·18민주광장에서 권영국 대선 후보 광주·전남권역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한다. 민주노동당 출정식에는 녹색당 광주시당, 민노총 광주전남본부, 노동계, 시민사회계가 참여한다.

정근산 기자

헌정사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연다

조희대 등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연합뉴스

이들이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연합뉴스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